

分斷小說文學에 나타난 韓國戰爭의 이데올로기 體驗 研究

— 1950年代 小說을 中心으로 —

趙 東 淑*

目 次

I. 序 論	올로기 分析
II. 韓國戰爭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50年代의 상황 인식
1) 韓國戰爭의 원인과 기원	2) 分斷小說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分析
2) 韓國戰爭의 성격	① 吳尙源의 「猶豫」
III. 韓國戰爭의 이데올로기 體驗 樣相	② 鄭漢淑의 「古家」
1) 이데올로기에 대한 概觀	③ 李範宣의 「鶴마을 사람들」
2) 韓國戰爭의 이데올로기적 폭력 樣相	④ 鮮于輝의 「불꽃」
IV. '50年代의 상황 인식과 分斷小說에 나타난 이데	V. 結 論

I. 序 論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¹⁾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1953년 7월

* 釜山女大 國語教育科 講師

1) 일반적으로 6·25의 명칭은 6·25동란, 6·25사변, 경인란(庚寅亂)으로서 내란(ci-

2 韓國文學論叢 第13輯

27일 휴전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두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한 이념 전쟁의 성격을 지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정치의 냉혹한 역학 관계에 용역(用役)된 동족끼리의 살육전인 이 전쟁은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과 제3차 대전의 위험성까지 내포한 전쟁이라는 점은 각계의 권위자에 의해 밝혀진 바다.²⁾ 국내적·국제적·지정학적으로 복합된 전쟁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저제도 포로 수용소”의 참상에 대한 증언은 이러한 한국 전쟁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손색이 없다. 미국이 관리하는 수용소에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간의 무자비한 살상과 테러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한국 전쟁의 결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이 땅의 전역과 생활의 모든 영역속에 침투하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특히 흑백논리가 팽배하여 많은 사람을 적(敵)으로 만든 것은 주목을 요한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역사를 가르친 죄인”이 되게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탈취한 이 전쟁은 남·북 공히 책임이 있으며, 냉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피해의 목록만 있을 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잘못된 전쟁에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보다 과학적인 인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원인은 연구가 역사적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기보다 연구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하여 왜곡·편향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에 관심권을 보이면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런 상황의 조성은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핵심적 논의는 피해온 듯하다.

분단문학에서 요구되는 문제는 한국 전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며, 생경한 외래 이데올로기에 유린된 민족의 궁지 회복이고, 타력에 의한 민족적 분열을 자력으로써 통일하는 일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50년대의 시대 상황과 문학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서, 한국 전쟁의 진상 파악에 문학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할

vil war) 또는 변란의 성격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6·25를 한국에서 일어난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보고 한국전쟁이라 부른다.

2) 金允植, 「韓國現代小說史」, 一志社, 1976, pp. 44~46, p. 264 참고.

金學俊, 韓國戰爭의 起源에 대하여 「1950年代의 認識」, 1990, p. 335 참고.

것이다. 즉 한국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체험을 과연 이념의 편견없이 수용했던가에 연구의 중심점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한국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재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전쟁의 체험 양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50년대의 분단소설에 접근할 것이다.

한국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체험이 50년대의 소설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된다.

첫째, 작중 인물들이 어떻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했는가?

둘째,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셋째,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에 대한 추적으로 작품 분석의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다. 단 주인공이 군인일 경우는 자의에 의한 이데올로기 선택이라 보기 어려워 그 선택 과정은 제외된다.

본 연구의 텍스트는 「現代韓國文學全集」(新丘文化社, 1981)에 수록된 50년대 작품을 소설적 장르에 관계없이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II. 韓國戰爭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韓國戰爭의 원인과 기원

한국 전쟁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가 미흡했고, 그것은 연구자 자신들의 태도와 유관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 전쟁의 연구가 역사적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가보다 연구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왜곡·편향 되어온 부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다.³⁾ 그런데

3) 분단과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櫻井浩에 따르면 분단 및 한국전쟁의 원인·기원은 그 시각에 따라 즉, 해방과 38선에 대한 인식, 분단의 원인 및 책임론, 한국전쟁의 성격 등을 보는 입장에 따라 28가지로 나누고 있다.(櫻井浩,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일고찰',

각각의 견해 표명은 부분적 적실성(適實性)과 함께 비판적 소지도 있다고 본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조인으로 일단락된 전쟁으로서 과거형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결된 진행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시작된 전쟁이지만 그 연구에 있어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가’의 발발 주체론에 정사될 것이 아니다. 이런 시각 조정은 오히려 전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소비적인 논의만 답습할 인자를 더 많이 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왜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가’의 전쟁 원인론에 대한 분석과 ‘그러한 상황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가’의 전쟁 기원론을 규명해 봄으로써 한국전쟁 논의의 올바른 입장과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⁴⁾

김동춘 역음, 「한국현대사 연구 I」, (이성과 현실사, 1988), p.269). 그러나 이 견해들을 김명섭은 (초기)외인론 I, 내인론(북합론 I), 북합론 II, 외인론 II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각 견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외인론 I (전통주의설) : 지금까지 남한정부의 공식적 견해로서 한국분단 및 전쟁의 원인을 소련 등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정책에서 찾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쟁의 모든 원인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시주에 의한 북한에 있는 것으로 된다. 이는 ‘탈역사화 및 해체적 접근이며,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다[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최장집 편, 「한국전쟁 연구」, 태암, 1990), p.314]. 김학준, 신용하, 노재봉 등이 주장한다. ② 내인론(북합론 I) : 이 주장은 주로 외인론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제시된 것으로 분단의 원인을 우리 민족사의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시각은 ‘우리를 중심에 놓은 분단문제의 파악’ [이호재, ‘한반도 분단 피할 수 없었는가’, 「새로운 한민족의교」, (나남, 1987), p.139]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등의 외세에 대한 분단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측면도 있다. 강만길, 이호재 등이 주장한다. ③ 북합론 II : 북합론 I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여 북합론 I이 분단의 책임을 좌우대립에만 두고있음을 비판한다. 분단과 전쟁을 4대 모순(특히 진영모순)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박현채, 강정구, B.Cummings, J.Halliday 등이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손영린, ‘분단의 구조’, 김홍명의,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한울, 1985), pp.59-92가 있다. ④ 외인론 II : 외인론 I에 비하여 소련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고 한국분단의 책임을 미국에게서 찾고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식민지 민족해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는 김명섭, ‘분단의 구조화 과정과 한국전쟁’, 최장집 외, 「해방전후의 인식 IV」, (한길, 1989), pp.110-119를 참고할 것.

4) 아울러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 및 기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i) 전쟁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남북한 민중들이 해방

전쟁에 의해서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전쟁 그 자체는 민족 모순과 더불어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존재하던 분단 모순에 대한 지양이 동기가 되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분단은 분단을 지향하는 미국과 그에 편승한 민족 내부의 일부 인사에 의하여 주도된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전쟁은 그 전쟁 발발 이전의 국내의 정치 동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의 한국 전쟁관은 미국에 대한 민족해방전 또는 민족자주국가 성립을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지만, 남한과는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은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민족통일국가의 성립을 두고 일어나는 국내 제정치세력간의 갈등과 제2차세계대전 후의 강대국(특히 미국)의 전략 정치가 빚어 낸 소산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잠재적으로 형성된 계급적, 민족적 대립과 갈등이 해방과 함께 첨예한 양상으로 대두되었고, 이는 남과 북에 우익과 좌익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과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좌익혁명이 성공하여 자주국가의 기반이 마련 되었으나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심한 정치적 불안적 상태를 겪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 시기의 상황이 2차대전 전의 독일, 일본, 이태리 등의 파시즘 세력과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자본주의 세력으로 구분되었던 세계 질서가 대전 후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등에 의하여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강고한 편이 못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특히 동북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또한 미국 국내의 정치적 요구도 엄청났다. 즉 미국은 2차 대전 후 과잉생산 공황과 내외시장의 축소에 의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나 자본수출과 시장 및 원료확보에 대한 독점자본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국면에 처했다.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 모순의 격화를 지적하고

이후부터 진실로 원하였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ii) 한국전쟁의 과정에 남북한 민중들의 피해 및 고통은 어떤 것이었으며, 고통의 정도는 얼마만 한가. iii) 전쟁과 이 이후의 분단의 고착화에 의하여 남북한 민중들이 어떤 형태의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삶은 어떻게 기형화되고 왜곡되었는가의 연구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는 문학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있다.

한국전쟁은 복합 원인들에 의한, 국내·국외의 정치 상황들이 조성되어 있을 무렵에 북한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함정설이 가능할지라도 개전초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제한적 전쟁의 의도로 남침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제한전쟁의 성격을 벗어나 곧 두 진영간의 싸움으로 비약하게 된 것이다.

2) 한국전쟁의 성격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해서 수렴되는 한국전쟁의 성격은 이념전으로서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⁶⁾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비참, 희극, 아이러니”로

- 5) 그러나 1949년 이후 38선상의 남북간에는 특히 남한측에 의한 계속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권은 북한을 무력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도 계속적인 군사적 충돌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B.Cummings의 함정설로 설명이 된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침공케 하고, 미국으로부터 증가된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B.Cummings, ‘한국전쟁과 에치슨 발언’, 「창작과 비평」(1989, 여름)을 참조 바람.
- 6) ①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1958, pp. 18~19, pp. 387~388. 여기서 언급한 것은 2차대전 종결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의 타개책 ‘마셜 플랜’등을 선포했으나 일시적 호전뿐이었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매력을 감퇴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경제단결이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에 직면케 했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자본주의의 모순의 격화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를 극동지역 침략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한다기보다 참고사항으로 기술해 보았다.
- ② 洪盛源, 韓國戰爭에 대한 새로운 照明, 「文學과 知性」, 1973, 여름, p. 327. 6·25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장소제공과 고용인에 불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③ 金炳翼, 6·25침플렉스와 그 克服, 「文學과 知性」, 1975, 겨울, p. 930. 6·25침플렉스를 세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 첫째, 6·25는 한국인에 의한 전쟁이었지만 한국인의 한국인을 위한 전쟁은 아니라는 점, 둘째, 이 민족의 원조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일부와 싸웠으며, 소수의 理想家들과의 전쟁이었었고 그들의 理想조차 외래의 것으로서 이미 상정된 적의 개념을 흐리게 만드는 점, 셋째, 오늘의 우리에게 6·25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④ 鄭漢淑, 「現代韓國小說論」, 高麗出版部, 1977, p. 151. 6·25전쟁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理想도

집약할 수 있는 설익은 이념과잉이 생존 그 자체의 선택을 의미하게 되어 버렸고, 결국 민족의 이념적 분열은 한국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겪어 왔다. 한국 전쟁은 국제 정치의 냉혹한 역학관계에서 회생된 이념전쟁이며, “죄의식”, “특수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동족간의 살육전이었다. 그 결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이 땅의 전역과 생활의 모든 영역속에 침투하였고, 한국 사회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냉전 이데올로기에 심한 규제를 받아왔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이데올로기는 흑백논리⁷⁾를 강요하여 사고의 폭을 좁혀 오는데 유효했다.

없이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야만 했다.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리 민족의 당면문제이자 부담요소가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⑤ 崔仁勳, 戰爭小說, 「文學과 이데올로기」, 文學과 知性社, 1979, p. 99.

6·25는 같은 민족의 싸움, 체제간의 싸움, 국제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⑥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82, pp. 330~331. 분단후 겪은 한국전쟁의 비극은 國際情勢로는 美·蘇의 군사적 대결이요, 국내적으로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南北의 政治的 대결이며, 思想的으로는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대결로 보았다.

⑦ 李時永, 現代小說에 나타난 韓國戰爭의 受容樣相, 慶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p. 118.

柳鶴永, 1950年代 韓國小說 研究, 成大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8, p. 97.

高銀, 1950년대, 청하, 1989, p. 18, p. 23, p. 93.

이 세 분들의 논의는 이미 언급한 내용에 포함됨으로 내용 언급은 생략한다.

⑧ 김환, 민족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한국 민족문제의 인식」, 도서출판 공동체, 1988, p. 175.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국의 자체 이해와 지정학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상승한데서 그 성격을 찾고 있다.

⑨ 황광수, 분단과정의 소설적 표현, 「변혁 주체와 한국문학」, 역사비평사, 1990, p. 232.

6·25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즐기차게 진행되어 온 민중·민족 해방에 대한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민중·민족해방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계급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강화하려는 반 민족적 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7) 韓完相, 「知識人의 虛僞意識」, 現代思想社, 1977, pp. 53~59 참조.

李泰昊, 青年과 이데올로기, 「民族·統一·解放의 論理」, 形成社, 1984, pp. 153~154.

흑백논리는 二分法的 思考이며 가장 원시적인 사고 형태를 띠고 있고 많은 사람을 敵으로 만들어 버리는 독선주의적 사고이다. 흑백논리는 흔히 모든 대상을 아(我)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전쟁으로 민족주체성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와 정치적 혼란상을 체험해야 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물음이 즐기차게 제기되면서 종래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해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공산주의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목록을 제시하던 입장 표명을 견지하고, 한국전쟁이 누구에 의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논의의 핵(核)이 놓여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은 이념전으로서 미·소 냉전의 부산물이며, 한국전쟁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념적, 전략적 갈등의 중심지가 되어 우리들 자신은 두 집단에 고용되어 생경한 구조를 외친 용병(傭兵)의 입장이라는 시각이다. 타율에 의한 전쟁을 자율에 의한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논의는 아무리 거듭되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진술한 대표적인 것을 예거하면서 그 진상에 접근하려고 한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와 권력 투쟁에 대한 것이다. 특히 외세의 영향권 분석은 매우 적절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해방의 국제적 성격은 국내적인 갈등까지도 외세의 영향 하에 놓이도록 하였으며 갈등의 규모를 크게 하고 복잡하게 했다. 갈등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발생되어 왔는데, 40년대 말 냉전의 파도가 한국 해안에 와 닿자 국내 권력투쟁은 <국제적>인 것이 되었다.⁸⁾

두번째 미국 주도의 반공, 봉쇄정책의 중심지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한국전쟁이 이념전쟁이란 사실에 회의적인 학자는 아무도 없다. 실제 6·25 결과 한국은 전세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이념적, 전략적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 봉쇄정책의 전초기지 및 교두보가

와 적, 선과 악, 살릴 놈과 죽일 놈, 충신과 역적, 애국자와 매국노, 선량한 학생과 과격분자로 양분한다. 흑백논자들은 자기에게 달갑지 않은 대상을 적과 같은 죽일 놈이며 역적이요, 매국노요, 악을 저지르는 과격 분자라고 매도하고 끝내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진력한다.

8) Okongi Masao, "The Domestic Roots of Korean War," The Origin of The Cold War in Korea, (Univ. of Tokyo Press, 1977) p. 299

되었다.⁹⁾

위의 두 논의점에서 한국전쟁의 성격은 외세의 영향권과 미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책문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세번째는 민족 내부의 이념적 쟁점¹⁰⁾이 한국전쟁의 원천이라고 보는 견해다.

한국의 6·25 역시 민족 내부의 이념적 쟁점의 최고 전쟁으로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내쟁형화하고 북안정형화로 자기전개하여 1950년 한국전쟁의 한 원천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¹¹⁾

네번째李文烈의 분석에서 이념대립의 기원은 훨씬 소급되어 있다. 이씨 조선의 당파싸움에서 그 근거를 보고 있고, 여기에 외세를 끌어 들여 극렬한 이념과잉의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자신과 봉당(朋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면 서도 무기로 쓰는 논리의 근거는 언제나 사직과 억조창생이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불행한 전통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사적으로 유용한 이념으로 이미 서로를 죽여 놓고 그 시체 위로 소련제 탱크를 몰고 가거나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¹²⁾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참상이 증언되면서¹³⁾ 한국전쟁의 성격을 검증(檢定)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이 전쟁은 미군과 북한 공산군을 그 주된 교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전의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 정부 및 미군과의 사이에는 그 입장이 상호 일치되지 않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9)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계간 「사상」, 1990, 봄호, p. 196.

10) 김학준, 「한국전쟁」, 博英社, 1989, p. 47.

우리 겨레의 책임으로 1945년 분단의 아픔을 맛보고서도 좌·우익과 남·북한의 이념적·지역적 반목이 끈질기었다고 보고 있다.

11) 김학준, 위의 책, p. 49.

12)李文烈, 「英雄時代」下, 民音社, 1984, pp. 612~613.

13)姜龍俊(당시 反共포로), 反共捕虜 석방, 「轉換期の内幕」, 朝鮮日報社, 1982, p. 617. pp. 622~627 참고.

1953년 6월 18일, 李承晩대통령은 유엔군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내의 전 포로 수용소의 반공포로를 석방시켰다.(유엔군은 그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미군으로 구성되었다; 필자)

반공포로 석방문제가 그 예가 된다.

또한 정전회담을 둘러싼 국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상관관계의 불모 내지 제물로 이용당한 것이 수용소 문제로 되어, 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은 동족상잔의 참극을 2중으로 겪게 되는 양상을 가지게 된다.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사이의 이념분쟁, 감정대립으로 인한 무자비한 살상은 이미 보도되거나 소설문학으로 형상화 된 바다.¹⁴⁾

이로써 이념전·국제전의 성격을 그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한국전쟁을 국제적, 국내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실상을 검증(檢證)할 수 있었다.

III. 韓國戰爭의 이데올로기 體驗 樣相

1) 이데올로기에 대한 概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데올로기라 부른다. 이 말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한국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는 경우나 지배 이데올로기, 친미 이데올로기, 반북·반공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등에서 이를 특정 정치적 사상 또는 이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 개념의 기원은 베이컨

14) 姜龍俊, 위의 책, pp. 627~631. 특히 p. 629, p. 630 참고 바람. (증언)

_____, 「철조망」, 「現代韓國文學全集」 15, 新丘文化社, 1981, p. 412, p. 414, p. 416, p. 427 참고.(소설)

張龍鶴, 요한詩集「韓國戰爭後問題作品集」 I, 新丘文化社, 1983, pp. 27~8 참고 (소설)

李繼淑, 「거제도 포로 수용소」, 혜전서관, 1989, p. 309, p. 311. 참고 (소설)

박태순, 거제도의 6·25 그 전쟁 범죄, (월간) 사회와 사상, '89. 6. 한길사, p. 194 (보고문).

미군이 관리하고 한국인이 경비를 맡는 수용소로 인하여 한반도 전체는 생지옥이라 하였다.

趙東淑, 張龍鶴의 實存主義 概念과 사르트르와의 거리, 수련어문논집, 1991, pp. 111~112, p. 117 참고 (논문).

(1561~1626)의 이상론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는 진정한 지식의 습득을 저해하는 장애로서 이상론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이상론은 인식의 오류와 편견이 발생하는 사회적 근거에 대한 이론적 시도라는 점에서 현대적 이데올로기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가치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마르크스에 의해서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범위를 좁혀 사회적 의식, 국가와 이데올로기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나아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갈등의 골을 심화시켜 왔던 여러 쟁점들, 즉 민주주의, 민중 해방, 민족 모순, 계급 모순, 민족 통일, 민족 해방이나 좌익 용공 사상, 불순 분자, 빨갱이라는 단어 등은 모두 이데올로기적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이데올로기란 역사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계급투쟁에서 사회적 의식의 역할과 작용이 직접적,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국가 권력의 단순한 장악(억압적 국가 기구의 장악)만으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헤게모니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실현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체제 유지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피지배 계급을 체제 안에 동화시킬 때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서구는 국가 기구를 통해 순조롭게 재생산된 반면에, 우리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¹⁵⁾적인 방식으로 작용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는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력과 폭력성을 수반하는 이데올로기로 각인되면서, 재생산되어 온 것이다.¹⁶⁾ 지배세력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강요

15)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다른 계급의 의지에 반하여 특정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 수단, 특히 국가적 강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하여' 폭력이 행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폭력은 인류의 적이다.

16) 徐仲錫, 「理念政黨은 타부인가」, 政經研究, 1969.12, p. 99.
 ...정부 수립을 전후한 국제정치적인 한계 상황, 즉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나타난 한반도에서의 미·소의 대립상황은 한국정치의 기초를 反共一色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고정 관념을 창출하고, 전쟁 당시의 참혹한 경험을 쏟아 부음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을 만들어 냈다.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비합리적으로 과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같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공포 정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반공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배 체제에 동화시키면서 지배권력을 내면화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데올로기란 단순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두뇌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허위의식을 말한다. 파시즘과 같은 ‘극우 이데올로기’나 공산 혁명의 표본인 ‘극좌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독소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역기능¹⁷⁾이 나타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민중적 역량의 축적으로 민족 해방, 인간해방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

2) 韓國戰爭의 이데올로기적 폭력 樣相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대국정치적 ‘힘의 논리’가 작용했던 이념 전쟁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어떠한 살상과 파괴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었던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는 민족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죄의식을 심화시켰다. 또한 타력에 의해 치뤄진 대리전쟁은 값비싼 희생만

으로 편제화시켰다.

白雲善, 民主黨과 自由黨의 政治理念 논쟁,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90, p. 95. 집권자인 이승만은 <반공>에 정통성을 두고 그의 권력체계를 굳혔으며 과연 그가 조직한 자유당도 그 정통성을 <반공>에 두는 강력한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자유당의 집권기는 반공에 의한 정당성의 향락기라 할 수 있으며 자유당의 이러한 정통성에 관련한 보수주의적 경향을 진보당의 불법화, 민주당의 통일정책의 용공시,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 17) 李泰昊, 靑年과 이데올로기, 「民族·統一·解放의 論理」, 形成社, 1984, pp. 153~154. 오늘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빈곤과 평준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불만고조, 공산 약소국의 공산 종주국에 대한 반발 증대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점화된 그들의 이론도 공산권 안에서 크게 수정되고 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빈부 격차의 심화, 경제·사회적인 대외 의존도의 증가, 민중의 소외감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있을 뿐 아무런 댓가도 얻지 못한 전쟁으로서 “지구촌 최악의 민족 전쟁”이자 ‘최대로 실패한 전쟁’으로 각인되고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생경한 이데올로기를 외치며 민중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과 반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유일한 가치를 통해 한국전쟁을 인식하게 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악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반공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배 체제에 동화시켰다.”¹⁸⁾

한국전쟁은 정신사적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¹⁹⁾

첫째로,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體制)를 비판한다면 直刻的인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위 반동은 물론 일부의 공산주의자들까지 宗派分子로서 處刑되며 잔인한 숙청을 감행했다. 이것은 일인독재 체제와 그 신격화를 위해서라 풀이된다.

한편 南韓에서도 전쟁 중에 살아 남은 附逆者에 대한 색출과 處刑이 계속되었다.

둘째로, 한국 전쟁은 사상 전쟁이었다. 사상을 표현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야만 했다. 양쪽 군대가 南北으로 여러 차례 前進과 後退를 거듭하면서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도 남·북이데올로기가 강제성과 폭력성을 수반하면서²⁰⁾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역사를 그르친 죄인”²¹⁾으로 반성하게 한다. 분단과 한국전쟁, 70년대 초의 7·4성명의 허구에 대한 장준하의 신상 발언²²⁾이 “민족주의자의 양심 이상의 민중적 신념의 토로”²³⁾라는 백기완의

18) 김재현, 이데올로기와 문화, 「삶, 사회 그리고 과학」, 도서출판 동녘, 1991, pp. 209~210.

19) 金宇鍾, 韓國戰爭과 50年代 文學,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82, pp. 316~318. 그는 여기서 세가지 변화를 기술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데올로기 부분만을 참고했다.

20) 이 폭력은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폭력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

21) 장준하 추모문집, 「민족주의자의 길」, 백범 사상연구소 편, 1978.8, p. 28.

22) 장준하 추모문집, 위의책, p. 28.

…60고비를 바라보는 지금 나는 이 회안한 민족사의 변천 앞에 보람보다는 일제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 전쟁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폭력성 중 간과해서는 안될 유형을 검증해 보겠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이승만 정권을 무능하다고 판단한 미군측은 직접 북한정책을 실시했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상 행위들은 폐하기 위한 교묘성까지 엿보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군이 직접 저지른 대량학살 가운데서 황해도 신천군의 만행은 그 잔혹성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한 미군 중위의 지휘하에 지주, 반공 종교인, 고리대금업자, 전달 등이 주민 학살의 선봉대가 되었다. 이들은 군 인민위원회의 반공호 속에 300여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900명의 인민을 가두고 학살을 자행하는 등 3일 동안 1,550명의 인민을 떼죽음 시켰고, 미군이 점령한 45일 동안 3만5천 383명의 무고한 주민을 학살했다. 이 숫자는 신천군 총 인구의 1/4에 해당했는데, 특히 궁흥면 만궁리에서는 인구의 87%, 온천면 용당리는 68%, 신천면 양장리는 남자 전원이 학살 당하기까지 하였다.²⁴⁾

한국전에서 민간인의 죽음과 고통은 폭격 그 자체에도 있지만, 가장 심한 것은 전선이 교착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옹호자 색출 및 살해, 그에 따른 보복 행위다. 이런 와중에서 민중들은 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거의 전부를 사격 학살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이 경남 거창의 양민 학살사건이다. 4·19이후 국회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 정권의 빨갱이 누명에 의해 학살당한 숫자는 경남 2,892명, 경북 2,220명, 전남 524명, 전북 1,028명, 제주 1,878명에 달했다고 한다.

민중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 전쟁에 의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민중의 피로 얼룩지고, 전국토는 초토화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인명 손실²⁵⁾을 가져 왔다.

하에서 보다 더 암울한 곤욕을 느낀다.

23) 白基院, 자유의 회복과 통일논의의 주체적 맥락, 「民族·統一·解放의 論理」, 形成社, 1984, p. 99.

24) 임재동·최정미, 미국의 전쟁전략과 전쟁정책,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분과편, 역사비평사, 1990, p. 224.

사회과학원 연구소, 「조선전사」 26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1, p. 128 참고.

25) 한국은행, 「한국 경제 연감」, 1955.

남한측의 실종 및 사망자는 민간인 99만 968명, 군인 30만 1천 864명.

이데올로기 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민중들²⁶⁾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했음을 증명해 보았다.

“인민을 위한 인민 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전쟁관도 전쟁 수행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무수한 양민을 학살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학살도 그들에게는 「正義」였으며, 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은 이론에 정연함을 보였고, 전선에서도 「政治上學」의 노트를 항상 휴대하면서 학습과 토론을 계속했다고 한다.²⁷⁾ 이런 것으로도 한국전쟁의 성격이 이데올로기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V. '50年代 상황 인식과 分斷小說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分析

1) 50年代의 상황 인식

필자는 앞 장에서 이념전·국제적·최악의 민족 전쟁·실패한 전쟁으로서의 한국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일어났는가, 또한 그 피해는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에 대해서 밝혀 보았다.

특히 환기를 요하는 것은 이 전쟁 결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했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의 가치 판단을 좌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상을 초래하게 했다. 남·북 이데올로기는 일제 해방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미·소가 자기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남북

김양명, 「한국전쟁사」, 일신사, 1980, p. 492.

북한측은 군인이 52만명, 민간인 20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26) 남과 북의 민중들은 생존을 위하여 그가 북한체제 이데올로기에 강요되었다. 분단은 38선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집단의식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 분단에 의해 그들의 생활은 왜곡·기형화되었다. 체제의 이질성으로 서로를 비방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또한 민주주의나 자유 또는 평등은 어느 쪽에도 공히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7)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82, p. 331.

한에는 이런 논리에 부합하는 정권이 각각 들어서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역사를 그르친 죄인”이 되게 한 한국 전쟁의 정치적 배경이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남·북 공히 비판받아야 할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분단문학에서 요구되는 문제는 한국 전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어야 하며, 생경한 이데올로기에 유린된 민족의 자긍심 회복이고, 나아가 타의에 의해 분열된 민족이 통일에 의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5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문학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문학이 한국 전쟁의 진상을 파헤치는 작업에 얼마나 성실했던가에 주목해 봄으로서 분단문학에 대한 비판적인 재해석을 하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한국 전쟁의 소설적 수용에서 이념의 편견없이 얼마나 그 본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가에 본 논문의 중심점이 놓이게 된다.

5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시대의 특징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정통성을 둔 강력한 보수주의적 통치 이념으로 집약된다. 집권자인 이승만은 끊임없이 북진 통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제했고, 민주화·통일에 대한 노력조차 용공시켰다. 이런 풍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본래의 이념에는 크게 어긋나 있으며 체제유지에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스탈린의 방법을 표본으로 삼아 끝없는 피의 숙청을 감행하여 인민을 배반하고, 공포 사회를 조성하고 있으며, 자신을 신격화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공수표가 되고 만 것이다.

50년대는 전쟁을 직접 체험했고, 이 전쟁을 관조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못가진 데에다 그 충격이 엄청나서 이념의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적·협오·악이라는 이미지가 공산당으로 형상화된 소설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무”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우위성에 확신과 동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전쟁을 수용하는 작가 의식이 경직된 반공논리에 조정되고, 반공·멸공·승공 이데올로가 통치수단이었던 정치적 입장²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역사의 진보에 대한 예술가의

28) 柳鶴永, 1950年代 韓國小說研究, 成大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8, pp. 98~99
북진 통일론과 反共이 이용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명이 예술가로서의 작가인 그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확신하고 동조하는데 있다”면 일단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인식없이 주입된 이념의 잣대에 맞추어 이데올로기를 다룬 것으로 보이며, 많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50년대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적 ‘조망’²⁹⁾이 나타난 것으로는 오상원의 「유예」, 정한숙의 「고가」,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선우휘의 「불꽃」으로 대표된다고 보았다. 이 작품들을 통해 필자는 작중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이데올로기에 동조했으며 그 선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또 결과는 어찌 되었나를 추적해 봄으로써 작품의 이데올로기 분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본 것이다. 이 분석 방법은 서론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 分斷小説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分析

① 吳尙源의 「猶豫」

이 작품은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졌고, 공식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가 이데올로기에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설의 곳곳에서 산견되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이 우선이어야 함을 토대로 하여, 일관되게 흐른다. 다음은 국군포로 하나가 공산군에게 처형 당하는 장면인데 주인공인 국군소대장이 이를 목격한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오.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오.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오.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김환, 민족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한국 민족 문제의 인식」, 도서출판 공동체, 1988, pp. 176~177.

그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함께 사회운동의 탄압 수단으로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29) 필자가 여기서 ‘조망’(眺望)이라고 한 것은 본격적인 수용이 되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강이 요구되며, 남·북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비판되어야 하는 입장 표명임을 밝힌다.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³⁰⁾

전장과 극한 상황에서 이원적 대립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체와 도구, 기계 또한 국군과 공산군, 삶과 죽음 중 양자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여기서 도구와 기계가 아닌 생명체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등식을 보이면서, 자본주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대장은 처형되는 국군이 자기자신이라는 동일성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이다 역시 공산군 포로가 되고 만다. 공산군은 그에게 생명과의 교환 조건으로 사상적 전향을 요구한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진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 뿐이오.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p. 186)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결음걸이는 의지처럼 정확했다. (p. 194)

소대장도 침묵으로 공산주의의 전향 요구를 거부하다 공산이데올로기에 희생된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의식 청년³¹⁾으로서의 주인공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응한 자세이다. 그는 입을 열어 그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와 비교하고, 이데올로기의 모순성과 허위의식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적극적인 이념 표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감상(感傷)의 자국이라고는 추호도 없는 긴박한 템포의 非情文體 그대로 非情性を 체현(體現)하고 있다”³²⁾는 것인데 필자가 보기로는 “非情性”은

30) 吳尙源, 猶豫, 「現代韓國文學全集」 7, 新丘文化社, 1981, p. 192.

* 이후는 페이지만 기록할 것임.

31) ‘의식청년’은 인텔리 청년의 동의어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자각하는 능력이 있는 청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32) 柳宗鎬, 途上의 文學 「現代韓國文學全集」 7, 新丘文化社, 1981, p. 441.

‘의지’의 개념이며, 이념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유예」에 대한 비판은 매우 긍정적이고 과찬적인 듯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는, “宣傳文學의 범위를 넘지 못했던 이전의 것에 비해 최초의 전쟁문학”이며 “전쟁문학의 훌륭한 표본”³³⁾으로서 “이념적 고뇌와 행동은 인간주의에 터하고 있다”³⁴⁾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후의 논의들은 대체로 이 범주에 놓인다.

그런데 전쟁과 정치의 非情性의 처리를 公式的 휴머니즘이 露呈하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³⁵⁾되었는데 필자의 견해와 약간은 유사하다.

필자는 「유예」에서 공산주의의 대립 개념에서 인간주의가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구와 기계주의는 타도의 대상인 공산주의라는 등식과, 오히려 죽음으로써 생명체, 인간주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즉, 공산주의 극복으로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이 작품 「유예」는 국군의 시각에서 본 공산주의의 비인간화의 증언이며, 광의로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기축을 두면서 인간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적 요소를 고발한 것이 된다.

② 鄭漢淑의 「古家」(1956년 발표)

이 작품에서 첩의 아들인 태식이가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계급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첩의 자식이라는 계층적인 위화감³⁶⁾에서 공산당원이 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논리를 받쳐 줄 이데올로기의 특징³⁷⁾을 살펴 보자.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렬하게 照明한 작가적 안목의 필연적 추세라고 했다.

33) 尹炳魯, 戰爭文學試論, 成大論文集 24輯, 1977, p. 41.

34) 金治洙, 6·25戰爭小說 「韓國小說의 空間」, 悅話堂, 1976, p. 40.

曹秉基, 現代小說에 投影된 戰爭意識, 成大文學 第24輯, 1985, p. 64.

35) 柳宗鎬, 위의 책, p. 446.

36) 태식은 조부와 종복사이에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종년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런 신분적인 열등감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선택한 것이 공산당이며 극단적인 파괴행위로 나타난다.

37) 김재현, 이데올로기와 문화, 「삶, 사회 그리고 과학」, 도서출판 동녘, 1991. p. 196.

첫째, 이데올로기는 사회관계의 반영과 정신적인 가공은 해당 계급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이 계급의 이해가 관철된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려는 실천 영역에 정신적인 토대로서 봉사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계급 투쟁에 복무한다.

태식은 “종년의 아들”으로써 그동안 억눌릴 수 밖에 없는 계급이고, 본능적·충동적 감정에 의한 보복심리를 키운 나머지 6·25가 터지자 “공산당”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된 공산당은 보복을 위한 파괴행위자일 뿐이며 악의 인물이 된다. 작품 속에서 자신을 확대하던 할머니가 거처하던 곳을 불태운다.

「내 이놈의 집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리고 싶지만 어디 인정이 그럴수가 있겠소. 그러나 형수님 그래도 저 밀의 채만은 그냥 안둘 참입니다.」

밀의 채라면, 큰할머니가 거처하던 방이 분명했다.

~中略~

태식은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기어코 할머니가 거처하던 채에다 불을 질러 놓고 가고야 말았다.³⁸⁾

종의 딸 길ner가 6·25가 터져 마을이 공산군 치하가 되자 ‘부락 여성 동맹’이 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신분적 보상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작품상으로 볼 때 공산주의에 대한 안목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³⁹⁾

태식이나 길ner가 공산당이 된 것은 자신의 출생과 신분에 대한 보상심리에 기인하며, 반항과 파괴의 양상을 띠고 있다.

……태식은 완전히 판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종년의 자식이 세상에 났다 공산당을 하지 않으면 무엇하며 살겠느냐…… (p. 129)

이 작품에서도 공산당은 악의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파괴행위를 통해서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는 패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다섯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필자가 인용한 것은 계급의 이해와 계급 투쟁에 관한 부분이다.

38) 鄭漢淑, 古家, 『現代韓國文學全集』 5, 新丘文化社, 1981, p. 131.

* 이후는 페이지란 기록할 것임.

39) 柳鶴永, 위의 논문, pp. 108~109.

암시되어 있는데 ‘길너’의 자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공산이데올로기는 파괴·악·혐오와 등가물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패배로 귀결되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소박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위치하며, 경직된 흑백논리에 작가 의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

③ 李範宣의 「鶴마을 사람들」

「학마을 사람들」은 '57년 1월 「現代文學」誌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범선에 대한 평가는 서정성·토착성·인간화에 두고 가장 한국적인 심상을 그려 내는데 탁월하다는 호평⁴⁰⁾과, 적당한 적용이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철학의 부재라는 평가⁴¹⁾로 구분된다.

확실히 이범선은 민족의 세계와 토착을 재구성하는데 애착을 보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목가적·낙원적인 공동체 삶의 지향은 그의 전기적 사실과 맥이 닿아 있어 보인다. 한국 전쟁 중에 난민들 틈에 끼어 월남했던 체험은 평화로운 풍속의 집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학(松鶴)이 그림처럼 조용된 작품 체계는 낙원의 이미지를 심어 준다. 그런데 이 낙원은 일제, 분단, 6·25를 체험하면서 파괴되고 탈취되는 것이다. 신화를 창조했던 학마을이 파괴되고 학나무가 불타며 학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변고(變故)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역사의 변혁기에 처한 사람들의 굴절 양상이 ‘바우’를 통해서 조감하게 된다.

40) 金東里, 학마을 사람들에 붙여, 「韓國現代文學全集」 6, 新丘文化社, 1965, p. 2.

千二斗, 詩와 人情의 世界 「韓國現代文學全集」 6, 新丘文化社, 1965, p. 457.

鄭漢淑, 「現代韓國小說論」, 高麗大出版部, 1977, pp. 39~40.

金宇鍾, 「現代小說의 理解」, 二友出版社, 1980, pp. 339~340.

41) 千勝俊, 庶民의 美學 「現代韓國文學全集」 6, 新丘文化社, 1965, p. 444, p. 446.

선의의 적당한 적용이나 소극성은 그의 작품의 한계성이다. 작품세계는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기보다는 감정과 인정의 순박성이기 때문에 탁월한 전형의 구현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철학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 논의에서 비전체시와 공헌의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대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의 요구라고도 볼 수 있다.

순박한 바우가 “박동무” “인민위원장”이 되어, 공산군의 앞잡이로서 파괴, 협오, 악덕의 인물로 변모한다. 그런데 바우가 공산당이 되는 이유는 사랑의 상실감과 그에 대한 분풀이와 복수심에 의한 것이며, 사랑의 상실에 대한 보상심리로 선택한 것⁴²⁾으로 볼 수 있다.

그 마을에 덕이와 봉네의 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잔치 전날 밤 바우는 마을에 사라졌다.⁴³⁾

학나무 밑에 서서 한참 덕이네 대문을 훑겨보다 말고,
「홍, 어디 보자.」 (p.303)

“학나무 밑에 아주 어린 학의 새끼가 떨어져 죽고” 사람들이 “무서운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무서운 변”이 마을을 흔들었다. 6·25가 터지고 누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학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왔노라”고 하며 마을로 들어섰다. 그러던 날 박훈장네 바우가 “박동무”가 되어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많이 알고 있었다. 유식해진 바우의 말은 다음과 같은 전쟁과 북의 ‘인민 혁명’과 관계 있는 명사들이다.

김일성 장군, 인민군, 착취, 반동, 영웅적, 붉은 기, 동무, 스탈린, 소련, 유우엔, 탱크, 해방, 숙청 (p.301)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동이다. 그리고 반동은 사정없이 숙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에서는 학부터 처지해야 한다며……총부리를 들어올려 학을 쏘았다. (pp.301~302)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공산당의 ‘악덕’을 통한 공산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 한 것 같다. 즉 학나무를 불태우고 학을 쏘아 죽이는 ‘바우’를 통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잔혹상을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삶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혐오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탈이데올로기적 경향⁴⁴⁾보다는 다분히 반공이데올로기적 경향⁴⁵⁾을 확인할 수

42) 柳鶴永, 위의 논문, p.303.

洪恩重, 眞實한 求神의 姿勢, 『現代韓國文學全集』 6, 新丘文化社, 1965, p.455.

43) 李範宜, 鶴마을 사람들, 『現代韓國文學全集』 6, 新丘文化社, 1981, p.299.

44) 柳鶴永, 위의 논문, p.99.

그는 여기서 문단현실에 대해 갈등론적 인식을 배제함으로써 낙원적 공동체의

있었다.

필자의 견해는 ‘바위’를 공산당의 앞잡이로 설정하여 파괴행동과 잔혹행위의 악당을 만들어서 공산당을 악의 인물로 부각시킨 점에서도 반공이데올로기에 작가의 의식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즉 공동체 회복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 작품 말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소나무를 키우고 鶴을 기다리는 모습은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고무적인 의지를 보여 준다⁴⁶⁾할 것이다.

④ 鮮于輝의 「불꽃」

이 作品은 1957년 7월에 「文學藝術」誌에 新人入賞을 한 바 있고, 東仁文學賞을 받음으로서 문단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그런만큼 다른 작가들에 비해 선우희의 작품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本人에게는 ‘출세작’이 되었고, 문단은 <問題作>으로 보면서, 참여문학·행동의 문학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⁴⁷⁾ 즉 역사에 대한 안목과 철저한 비판정신에 바탕한 의지사항의 철학성이 고양된 수작(秀作)으로 「불꽃」이 가치 부여된다. 이런 진단에 의하면, 작품 「불꽃」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전에는 거의 없던, 한국 전쟁을 반성해보려는 사상적인 의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향수를 탈이념의 원인으로 잡고 있다.

차원현, 1950년대 한국 소설의 분단 인식, 「1950년대 문학연구」, 도서출판 예하, 1991, p. 111.

그는 ‘유학영’의 위의 논문에 이론적 모델을 삼은 듯하다.

45) 李在鎰,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韓國現代小說史」, 弘盛社, 1989, p. 285.

46) 金宇鍾, 「現代小說의 理解」, 二友出版社, 1980, p. 296.

47) 洪思重, 鮮于輝論, 「思想界」, 1966. 5, p. 307.

黃憲植, 鮮于輝論, 「現代文學」, 1974. 7, pp. 301~303.

尹炳魯, 戰爭文學試論, 成大論文集 第24輯, 1977, p. 40.

「東仁文學賞受賞作家選」, 博英社, 1979, p. 5.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82, pp. 375~376.

특히 이 작품은 反共文學으로서도 思想이 명백, 적극성을 띤 作品으로 보았다.

曹秉基, 現代小說에 投影된 戰爭意識, 成大文學 第24輯, 1985, p. 57.

金良洙, 행동의지의 상황문학, 「한국 소설의 문제작」, 一念, 1985, p. 71.

선우휘의 약전(略傳)에 의하면 해방 직후 월남한 작가이며, 서울에서 기자와 교사생활을 했고 10여년간 군복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불꽃」은 군복무 중의 작품이며, ‘동인문학상’은 육군 소령때 받았다. 선우휘는 그의 발언에서 “언제나 時代의 상황 속에 뛰어 들어苦惱하고 행동하는 젊은 세대를 좋아한다”⁴⁸⁾고 했고, “전쟁문학에서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비극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투철한 작가적 역사의식이 요구된다”⁴⁹⁾고 했다. 여기서 전자는 작중 인물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작가 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군복무 중에 씌어진, 「불꽃」에 나타난 군대조직과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구타·학대·잔인·오만·비굴·허위의 범벅. 군대란 인간이 있을 데가 못된다.〉⁵⁰⁾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군대는 인간이 있을 곳이 못된다고 느낀다. 즉 군대 조직의 비인간화에 대한 인식이다.

일제, 8·15, 6·25라는 변혁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인공 현은 의혹과 끝없는 혐오감에 잠긴다. 한국 전쟁에 대한 현의 시간은 매우 부정적이다.

……인민군의 대열이 지나가고 있었다. 늘어진 시체, 붉은 깃발의 시위.
〈이것은 또 무슨 짓이나? 그러나 하고 싶거든 멋대로 하려무나. 여하튼 간에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에게겐 손톱만큼의 관련도 없다.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다.〉 (p. 348)

“시체”, “깃발”에 대한 주인공 ‘현’의 물음은 “무슨 짓이나?”로 나타난다. 시체는 인간의 회생을,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표명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북으로 갔다던 연호가 나타나면서 사상 논쟁이 벌어 진다. 공산주의

48) 鮮于輝, 小說에 있어서의 <재미>, 「現代韓國文學全集」 12, 新丘文化社, 1981, p. 483.
여기에서는 의지사항의 철학성이 보인다.

49) 선우휘·김은국, 전쟁문학의 어제와 오늘, 「조선일보」, 1984. 6. 23.

50) 鮮于輝, 불꽃, 「現代韓國文學集」 12, 新丘文化社, 1981, p. 337.

* 이후는 페이지만 기록할 것임.

이데올로기 비판이 나타나 있지만, “이데올로기 비판의 냉철함”⁵¹⁾이라는 포괄적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비판이 되려면 공산과 자본이라는 양대 이데올로기의 비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념이 우세하려면 상대 이념의 열세라는 과정없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바로 이점에 「불꽃」의 한계점이 놓이는 것이다. 反共文學으로서는 〈문제작〉이 될 수 있으나 理念文學으로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혁명의 성취를 위해서, ‘현’을 열성적으로 일해야 할 사람이라는 연호와의 사상 논쟁(사실 언쟁에 가깝다.)에서 드러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다.

「……피의 댓가 없이 어떻게 혁명의 성취를 바랄 수 있겠나?」

「누구의 피, 누가 흘려야 하는 편대?」

「그것은 혁명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피, 그리고 혁명에 바쳐지는 인민 전사들의 고귀한 피. 그러나 더 많은 원수들의 피가 요구되지」

……中略……

「도대체 것처럼 많은 시체를 넘어서야 하는 혁명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착취 없고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 (p.349)

여기에서 혁명의 원수들은 인민의 적으로서 자본가, 지주, 친일파, 반동분자, 기회주의자이며 그들에 대한 독기와 증오와 살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다음은 혁명가들에 대한 의견들인데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혁명가들의 자기 희생을 생각해 보게」

「……자아 도취와 허영에 치른 값이 어찌서 희생인가?」

……中略……

자기가 나서야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다는 무언은 자기가 그 폐품을 맡아야 소비자들이 헐값으로 쓰게 된다는 장사치의 헛소리나 다름이 없거든. 다름 없다가보다 도리어 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 장사치는 이윤만을 탐내는데 그들은 존경과 지배까지를 요구하거든. 청탁도 많은 청부를 맡아 가지고는 더욱 괴롭게 한단 말이야」 (pp. 351~352)

자기 도취와 허영, 청탁 없는 청부업자들은 일반 대중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희생시키는 인물들이라고 반박함으로써 연호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51) 曹秉基, 위의 논문, p. 59.

냉전이라는 프리즘을 통한 경직된 사고의 표출이며, 논리적 차원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운 조건반사의 인식에 닿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반공의 명분적 역할일 뿐 논쟁의 정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불꽃」은 적극성을 띤 反共文學⁵²⁾일 뿐 이념문학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우휘의 한국 전쟁관은 공산주의에 대한 규탄적 성격이 강하며, 작가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6·25 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작가(평론가)가 경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6·25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것을 우리 전쟁문학의 절대적인 명제로 믿는 것이다. 사상 최초로 사회(공산)제국주의가 명백한 침략전쟁의 기본 성격을 대전제로 삼지 않고 전쟁문학을 전쟁작품으로 정상화 할 때 그것은 아무리 거기 구사된 문학적 기교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워져 우스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꼴이 될 것이다.⁵³⁾

「불꽃」도 작가의 이러한 한국 전쟁관, 反共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불꽃」에서 비인간화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반대 개념을 보이는 것은 “꽃밭”이다. 꽃밭의 의미는 인간의 삶,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조그만 권리인 것이다. 광의로는 전쟁, 협의로는 한국 전쟁에 의해서 “꽃밭”과 “꽃밭의 시대”는 탈취되고 있다.

공산이데올로기와 인민 재판, 살인이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살인청부업자”의 하수인인 연호가 <인민>·<계급>·<혁명>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살인”의 목격에 의한 현의 충동, 마음의 줄은 여태껏 “정면으로 싸워 본 일도 없고 너절할 너석”이었던 현을 상황 정면에 나서게 한다.

따각! 불발탄을 끄집어 내고 다음 탄환을 밀어 쥔 현의 소총과 연호의 권총에서 불이 튀었다.

……中略……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 (pp. 359~

360)

52) 金字鍾, 위의 책, p.376.

53) 鮮宇輝, 6·25와 전쟁문학, 「韓國文學」1985. 6, p.39. 참고.

외면, 도피 도주로 보낸 30년의 삶은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⁵⁴⁾로 반성된다. 그래서 상황에 정면으로 뛰어 들어 “적”과 대결함으로써 지난 죽은 삶이 살아본 삶으로 치환되는 증거로 인식한다. 살아서의 마지막 소명은 살인 청부업자들에 대한 거부며,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려는” 단호한 행동의 의지를 보게 한다. “새로운 생명의 퍼득임”을 예감하면서 통절한 해방감을 느끼며 죽어 간다.

이미 꽃밭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살아서 먼저 청부업자들을 거부하자. ……
광기의 청부업자는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가 와야 한다.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 (p. 361)

「불꽃」은 인간들의 삶과 권리 행사의 터전인 “꽃밭”과 “꽃밭의 시대”의 회복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거부에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불꽃」은 반공 사상의 소설적 이해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양대 이데올로기를 함께 비판하여 그 모순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 할 것이다.

V. 結 論

분단문학에서 지적되어 왔던 취약점 중의 하나는 사이비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단 상황과 한국 전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정치적인 여건에서 그 답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의 전체성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의 부재”⁵⁵⁾에도 기인할 것이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는 자유·평등·형제애를 이데올로

54) 主人公 ‘현’의 반성적 발언에서 살필 수 있는 외면과 도피 의식은 현을 허무주의자, 패배주의자로 평가받게 했다. 이하 참고.

廉武雄, 鮮于燁論, 「創作과 批評」 1967, 겨울, p. 649.

金現, 虛無主義와 그 克服, 「思想界」, 1968. 2, p. 292.

55) 廉武雄·白樂晴編, 리얼리즘論, 「文學과 行動」, 太極出版社, 1974, p. 396.

기의 조직화된 폭력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인민>을 근거없이 학살하면서도 살육이 아니라 「正義」의 수행으로 호도(糊塗)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전선이 교착되면서 적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자 색출, 살해,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피가 피를 부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민중의 의사와는 무관한 한국전쟁에 의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민중의 피로 얼룩지고, 전국토는 초토화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민중이 살상되었다. 살인과 테러가 <인민>·<계급>·<혁명>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흑백논리에 의해 사상(이념)을 갈라 도륙한 사실도 은폐되는 곳에 이 전쟁의 성격적 본질이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과 조국의 전체 이익과는 먼 거리에 있는 전쟁이며, 참전한 군인의 입으로도 “의혹”이며, 명분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이 작품의 곳곳에서 산견되었다. “늘어진 시체” “붉은 깃발의 시위”는 “또 무슨 것이냐”의 물음표에 지나지 않는다. 1950년대는 한국 전쟁을 직접 체험한 시대로서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 대신에 북의 이데올로기는 논리적 차원에서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조건반사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냉전이라는 프리즘을 통한 경직된 사고에 다름 아니다.

50년대 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데올로기 체험은 이런 일련의 인식들에 맞물려 있다.

필자가 검토하고 확인한 점은 이데올로기의 비극적 체험이다. 대개의 경우 공산당이 된 이유의 공통점은 본능적·충동적 감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랑의 상실이나 계급적 열등감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원의 파괴자, 집에 불을 지르는 자, 민중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악덕이 “동무”들에 의해서 저질러 진다. 그러므로 “동무”들을 통해서 공산이데올로기는 이해되며 오직 적대감과 혐오감뿐이다. 그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된다. 이런 구조는 민주·자본 이데올로기의 승리가 역사적으로 시사되어 있으며,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텔리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데올로기는 그 비판 의지가 명확하고 냉철한 데 비해 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경우는 축적된 증오심과 보복심을 폭발하는 기회가 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유예」, 「불꽃」을 통해서, 후자의

경우는 「고가」, 「학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네 작품들은 반공 소설의 훌륭한 표본이지만 본격적인 이념소설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즉 이데올로기의 극복으로 민족 동질성회복에 가치를 두지 않고, 도식된 반공주의에 동조하고 확신을 보임으로서 “정치적 이용문학에 맞춘다”⁵⁶⁾는 비난에 가까운 확대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초래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진단하는 데는 핵심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젠 소박한 휴머니즘이나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초래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평면적인 역사 해석의 지양과도 관계된다.

56) 高銀, 1950년대, 청하, 1989, p. 18.